우리 복지관은 지금

1.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상

불교 자비 정신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도움 제공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복지 실천으로 구현하고자 1995년 2월 25일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휼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꾸준히 역할을 확장해 왔습니다.

2025년 창립 30주년을 맞은 재단은 불교계의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결·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과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국정토 구현을 지향하는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재단은 전국적으로 약 18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며, 다양한 자비나눔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 실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조계종의 오랜 전통과 전국 교구본사 및 지역 사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은 불교계 사회복지의 고유한 강점으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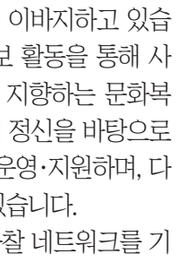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생애 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교적 가치가 담긴 윤리적·실천적 복지관을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과 관리, 활동 연계를 통해 전국 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비나눔 사찰 캠페인', '만행 결연 후원' 등 다양한 후원 캠페인을 전개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및 저소득층 생계·교육 지원 등 구체적·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의료·교육 지원과 재난 구호 등 국제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며, 국경을 넘어 불교적 자비 실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 위에 축적된 경험과 현대적 전문성을 결합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 실천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원예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임

新年隨想

'인생난득' 몸과 마음에 새기는 새해 되길



무비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불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소리마저 다 쉬어 가고,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언제 생을 마칠지 모르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법어의 무게는 그 어느 날보다 무겁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붙들고 살아온 화두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입니다.

"인생난득(人生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화엄난견(華嚴難見)"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그 가운데서도 화엄을 만나고 보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말이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가장 오래된 말이 가장 새로운 말이 되고, 가장 흔한 말이 가장 값진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구에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경책입니다.

사람 몸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법을 만났다면, 그 인연은 더욱 깊고 귀합니다. 불법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불법은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 구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한 말씀이 평생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촌철살인(寸鐵殺人)'이라고 합니다. 말은 짧지만, 그 힘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법에는 여러 교설이 있고 여러 주장과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바가 다르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분열도 생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화쟁(和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화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화쟁은 불가능합니다.

〈화엄경(華嚴經)〉을 만나기 어렵고, 화엄을 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원효 스님의 화쟁 또한 결국은 화엄 사상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화쟁이란 불법에 대한 여러 교리를 모두 융화시키자는 뜻이며, 그 화쟁은 결국 〈화엄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산 앞바다에서 물을 떠 마셔도 짠맛이고, 동해에서 마셔도 그 맛이며, 서해에서 마셔도 그 맛입니다. 그 바다에는 온갖 강물이 들어옵니다. 온갖 동물들의 오물과 사람이 쏟아부은 오물까지도 모두 흘러들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섞여도 바다는 바다의 맛 하나만을 냅니다. 짠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주장, 저 주장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모두 한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자기주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인생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불법을 만난 가치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 주장과 여러 생각이 있지만, 불법을 만났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은 누구에게나 짧습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해도 그러했고, 다가오는 새해도 역시 그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장대교망 녹인천지어(張大教網 漉人天之魚)"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입니다. 큰 가르침의 그물을 활짝 펴서 인천(人天)의 고기를 모두 건져 올리겠다는 이 서원은 원효 스님 평생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부처님의 깃발이며,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깃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 지중히 여기고 불법, 그중 화엄 만난 가치 깊이 새기며 한 구절이라도 천 번 만 번 되새기라"

장대교망 녹인천지어(張大教網 漉人天之魚)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다 교화하리라.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이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관찰하라.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諸法從緣生 諸法從緣滅 我佛大沙門 常作如是說)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 조각이 있는 법은 꿈이요, 환영이요, 물거품이며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이치는 한 번 들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나 역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또 읽고, 또 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 했습니다. 백 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백 번 읽고도 모르겠다면 또 백 번 읽어야 합니다. 읽고 모르면 또 읽으십시오. 불법은 그렇게 반복 속에서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났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가슴으로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법을 만난 가치를 깊이 새기며, 한 구절이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천 번 만 번 되새기는 것. 그것이 새해를 맞는 불자의 길입니다.

나는 평생 이 말 하나를 붙들고 살아왔고 올해도,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인생난득(人生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화엄난견(華嚴難見)"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불곡산 대 광 사
주 지 경혜 스님
신도회장 민 기 홍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715-3000 | FAX. 031-715-3409
E-MAIL. daegwangsa3@gmail.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